

제 120호 응급사례1

<<편집 코너>>

교수라는 직책 하나로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대우받는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의에 충실하던지 연구에 몰두하던지 대인관계를 다지는 일에 저녁 시간을 투자하던지, 교수님께서서는 사회(집박) 생활에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란 9시부터 6까지 일하는 "직업"이면서, 그 나머지 시간 내내 붙어 다니는 "계급"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수님께서 온갖 평가에 시달리고 개혁의 대상으로 몰리고, "교수노조"라는 것까지 등장하여 교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수"에는 앞으로 "직업"만이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교수"라는 직책 이외에서 인생의 뜻과 가치와 만족을 느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가족(집안) 생활을 외면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호 동안 "가족심리치료사(family therapist)"인 최성애 박사가 교수님들의 자기 관리 중 가족과 인간 관계와 관련된 문제해결에 대해서 사례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응급 사례 1. (남자 교수의 사례)

P교수는 50회 생일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등줄기에 찬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3년 전 그 날 아침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갈 준비를 바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강의, 11시 과 회의, 2시부터 대학원생 졸업 논문 심사...등등을 머리 속으로 챙기며 와이셔츠를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이 조용하다는 느낌이 얼핏 들었습니다. 부엌 식탁에는 보통 때처럼 있어야 할 조반이 차려져 있지 않았고, 아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식탁에는 아내의 필적이 적힌 노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껏 많이 참아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주 후에 이혼장이 도착할 테니 그 때까지 저한테 연락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이 만우절도 아닌데?' P교수는 엉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참, 내 생일이야. 난데없이 왜 이런 유치한 짓을 하지?'

그리고 보니 지난 며칠 동안 아내가 별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대해주던 것을 그냥 갱년기 증후겠지~ 하고 무심히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날 떠나기로 작정...?' 문득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가슴이 바위로 내리쳐지는 것 같고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설마...아니야...그럴 리가 없어...주제에 감히 나를 버린다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난 남들 놀 때도 안놀고 열심히 연구하고, 인정받고, 보직까지 맡고, 소위 잘 나가는 교수 아닌가?'

머리 속을 막 휘젓는 생각 속에서도 행여나 하며 이 방, 저 방, 화장실까지도 열어 봅니다. 그러나 아내의 옷장은 빈 채로 말끔히 정돈되어 있고, 신발도 없습니다.

이 날부터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기까지 15개월 동안 P 교수는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부정도 하고, 분노도 하고, 애원도 하고, 다짐도 했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결심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할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미국 가서 자리잡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왜 그렇게 아이들 유학을 즐라했는지 "감"이 든 자기가 얼마나 집안 분위기를 모르고 지냈는지 아찔하기만 합니다.

"자기만 아는 인간, 자기가 최고인 인간, 아내와 자식을 눈꼽만큼도 배려해 주지 않는 인간!"이라는 차가운 말들을 아내의 입에서 듣고서야 그동안 자기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교수로서, 학자로서의 자부심이 가족에게는 "상처뿐인 허울"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 이목이나 집안 친척들한테 체면을 잃는 것쯤은 이제 초연해졌습니다. 학교에서 승진 심사용 연구 논문 쓰거나 업적 올리기도 무의미하게 여겨졌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전화하는 것도 이제는 부담되고 같은 말 반복하기도 귀찮아졌습니다. 사는 게 재미없고 아무 목표도 방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P교수가 이혼 후유증으로 심신이 탈진 상태가 된 이후 상담치료를 통해 <자기회복>을 한 과정에 대해 계속하겠습니다.